



강세원 이사
(푸리나코리아)

5월

에도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공급부족, 수출강세라는 사이클이 큰 변동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만 보면 돈가가 사상 최고값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돈가상승을 억제하는 시장요인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의 하나로 채산성 악화에 따른 육가공업체의 작업두수 감소가 예상된다. 원료돈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육가공업체가 장기적인 원료돈 확보를 위해 산지시세 이상의 구매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속에 돈가는 아직 회복시세를 보이지 않고

가 상승한데다 일본의 경기 침체로 수출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채산성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본 시장에서의 돈육 수입요구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현재까지 예고되고 있는 한일 양국의 돈콜레라 박멸계획의 추진결과에 따라 향후 돈육수출 중단사태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수입중단사태가 일어날 경우 국내 양돈업계에 예상키 어려운 변화와 어려움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큰

지육 kg당 3,000원대 전후 강세 지속

이기 때문이다. 작업두수 감소가 이어지면 부족된 공급물량을 위해 수입돈육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여름철 돈가 상승기에 대비해 상당량이 수입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돈가 억제 요인 등이 본격 작용함에 따라 돈가는 지난 달과 큰 변동없이 지육 kg당 3,000원대 전후의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콜레라 백신접종 돼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최근 일본정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출시장에서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작년에 이어 계속적인 수출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내 원료돈가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또 1~2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총력적인 돈콜레라 박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 국내 돈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최근 조사보도는 주어진 시간내에 돈콜레라 박멸이 전혀 불가능한 것 만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돈업계 내부로는 질병 피해를 줄이고, 외부로는 정부의 협상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돈콜레라 박멸 계획을 단합된 노력으로 수행해 나갈 때면 이번 사태가 가져온 한국 양돈의 위기가 양돈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4월

초부터 국내돈가가 3,000원/kg을 초과하는 현상은 국내 돈육소비 증가보다는 원료돈 출하두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돈육

소비가 다소 증가하는 5월에는 4월보다 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일일 출하두수가 42,000두~43,000두 수준이면 평균돈가는 2,700원/kg~2,800원/kg 유지되나 4월 들어서 40,000두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돈가가 3,000원/kg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소비측면보다는 공급량 감소가 돈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정되고 있어 급격한 돈가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월들어 산지 원료돈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원료돈 구매요율이 평균 66%까지 상승하였고 향 후 약 1% 정도 추가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되는 것은 '98년 10월 이후 추가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되는 것은 '98년 10월 이후 돈가상승, 구매요율 상승, 부위육 판가 상승어려움, 수출판가 하락 등으로 가공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때 출하농가들의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공업체와 원료돈 출하계약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돈콜레라에 대한 방침이 공표되면서

5월 돈가 3,100원~3,200원 수준 형성될 듯

을 알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일정수준의 가동률 유지라는 육가공업체의 현실과 지육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정물량 확보가 생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출하두수가 42,000두/일 이상 증가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단기간 돈가하락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5월 돈가는 3,100원/kg~3,200원/kg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가를 3,000원/kg으로 하고 4월의 부위육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감안할때 가공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15,000원/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중·소 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삼겹 및 목살재고가 4~5천톤으로 추

국내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가공업체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만약 일본으로 돈육수출이 중단될 경우에는 굉장한 악영향이 농가 및 가공업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 시나리오는 수출중단과 동시에 가공업체의 급격한 채산성 악화로 3개월~6개월에는 부도업체 속출하고 4개월~8개월에는 국내돈가 폭락하고 6개월~12개월에는 사료업체, 동물약품회사 및 축산기자재 회사에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사육규모는 2년이내 30%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돈콜레라 박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양돈**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돼지고기 소비가 예상 외로 정체되면서 육가공업체는 물론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산지 및 지육가격 강세는 육가공업체들의 원료육 확보와 대일 수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당초 4월부터 좋아지리라는 소비시장이 정체 및 둔화현상을 나타내면서 계획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반면, 소비성수기를 맞으면서 유통시장 활성화라는 기대심리가 있어 일부 업체들은 관망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중이 큰 쪽으로 증가됐다는 것이다. 가격 역시 냉동육과 차이를 두고 공급망을 늘려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이같은 현상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냉장육 유통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하고 있다.

수입육의 경우 '개점 휴업'이라는 말처럼 장사가 잘 안되고 있다. 국내산 가격이 오르면 수입육 유통도 좋아진다는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올 국내산 수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수입계약 물량이 지

소비정체, 판매가 인상 저항선 부딪혀

유통시장에서도 국내 돼지사육두수 감소 및 출하물량 부족현상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저울질을 하고 있음에 따라 관망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더욱이 유통시장에서도 최근 일본의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른 돈콜레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영향이 미칠 경우 국내산 유통업체는 물론 수입육 유통업체들에게도 그 파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올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냉장육 유통

난해보다 1만여톤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입육 업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돼지고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돈콜레라 문제는 유통시장 전체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어 모두가 안절부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돼지고기 지육가격 역시 kg당 3천원대의 강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크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강세 지속=하향세 지속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동**